한라시론

한 동 균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한중관계의 재정립 필요성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IMF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1980년 이후 처음이고, 한국과 중국도 각각 IMF를 겪었던 1999년 이후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1%, 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나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국가들의 경기 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G2 경제의 반등 소식을 글로벌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키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중국경제와 글로벌 패권 다툼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보통 2주간 열리는 양회는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했지만 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팬데믹 회복에 자신감을 가진 모습들이 역력하다.

먼저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6%이상으로 제시해 코로나19 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인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초안'과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강요(綱要)'를 심의, 통과시키면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야망도 드러냈다. 특히, 경제문제에서는 내수시장을 극대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억제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전략을 중심으로, 산업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자립과 자주적 산업망 구축 등 독자생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사회문제에선 빈곤 퇴치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극복, 정치분야에선 국제사회의 홍콩과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인권 비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필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번 양회는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계획을 만드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10월에는 제20차 공산당 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더욱이 내년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양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논어에 '三十而立(서른 살이 되어 자립한다는 뜻)'라는 말이 있듯이 30이라는 숫자는 뭔가 중요한 뜻을 세우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비록 현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관계가 아직도 완전한 해빙기를 맞이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對)중국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갈등도 잠재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심화에 따라 한국의 중국 관리가 점점 더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중 양국은 서로를 더욱 새롭게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올해 한중관계가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편집국 25시

원 지사 대권 꿈, 윤석열에 달렸나…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군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과거 비슷한 유형의 대권 신데렐라들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과는 달리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에 윤 전 총장은 한줄기 빛 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의 기존 대권 주자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을 듯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았던 야권은 텃밭인 대구 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원 지사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에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권 후보군을 대상으로 연 토론회에 원 지사를 초청했고, 원 지사가 여의도 출장을 나올 때면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청하는 일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이제야 대선이라는 밥상에서 '밑반찬'이 아닌 '주메뉴'가 됐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다음 행보로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야권의 눈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본다. 그러는 사이 원 지사는 최근 중앙정치권을 찾는 행보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원 지사나 그의 측근 그룹에선 기껏 올려놓았던 몸값이 한 순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씁쓸해하고 있을 지 모른다.

윤 전 총장은 오는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선 원 지사의 대권 행보가 윤 전 총장이 중도 포기 없이 대권을 향할 지 여부에 달린 모양새다.

뉴스-in

"표준주택 오류?…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 제주도 주장 반박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됐다는 제주도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국토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지적하는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했다"고 주장.

또 국토부는 "지자체가 작성한 건축물 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했다"면서 일부 표준주택이 잘못 선정됐다면 그 책임은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에게 있다는 취지로 반박. 이상민기자

제2공항 국토부 면담 불발

○… 17일로 예정됐던 제주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2차관과의 면담이 불발.

이날 면담에는 송재호·위성곤·오영훈 의원이 참석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부 측의 사정으로 추후 면담 일정을 잡는 것으로 변경.

면담을 미룬 배경에는 국토부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점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 부미현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제주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스마트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복지앱'을 운영 눈길.

시는 복지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게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앱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달라지는 내용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이웃과 소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 이윤형기자

사설

표준주택 선정부터 잘못됐다니 말이 되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이른다.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공시가격 쇼크'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비해 소폭 오른 제주지역은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상당한 오류가 드러났다. 도내 전체 표준주택 4451곳 중 토지·주택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곳의 공시가격을 검증했는데 47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폐가 등 집값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거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것이다. 이같은 표준주택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인근 개별주택도 1134곳에 달한다. 오류 유형별로 보면 폐가나 빈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건물을 과세 면적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경우가 16건이다. 또 상가 등 적용 9건, 면적 오류 4건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까지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준주택을 허술하게 선정할 수 있나.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초자료가 된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등 주택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 이처럼 중요한 표준적인 건물부터 잘못 선정됐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래서야 공시가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월동채소 '풍선효과' 역습… 애타는 농심

제주 농민들이 월동채소의 '풍선효과' 재현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 작물이 줄면 타 작물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는 올해 마늘재배가 줄자 양배추 월동무 증가로 나타났다. 밭작물중 최고 인력소요로 생산비 과다에도 수년간 가격하락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마늘농가들이 타 작물로 바꿔 재배했고, 무와 양배추가 '직격탄'을 맞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월동채소 '풍선효과'는 그간 수 없이 예견돼 왔음에도 도정과 농협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도와 농협은 이달들어 물량증가로 가격하락을 겪는 월동무와 양배추에 출하정지, 자율감축 등에 나섰다. 월동무 출하정지는 251ha 1만7000t을 대상으로 추진, 3.3㎡당 5010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양배추도 늦은 출하에다 타 지역 출하와 겹치면서 가격하락을 불러와 최근 남은 물량 4만여t의 10% 자율감축에다 할인 판촉, 수출 등에 들어간 상태다. 작년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한반도 내습으로 타 지방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제주산 월동채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현실을 맞았다.

월동무와 양배추 가격하락은 수 년간 가격폭락 사태를 겪은 마늘농가들의 특정 작목전환으로 이어진게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올해산 마늘의 도내 재배면적은 1795ha로 전년(1943ha)보다 7.6%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농업을 강타한 '풍선효과'의 악순환인 셈이다.

농민들은 언제까지 과잉생산 가격하락 산지폐기 작물전환이라는 악순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분노한다. 도와 농협, 농민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대체작물 발굴, 작물별 재배면적 조정, 유통과정 혁신 등에 전례없는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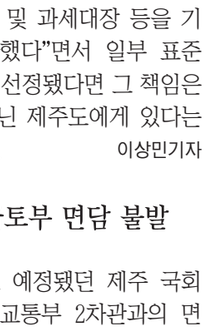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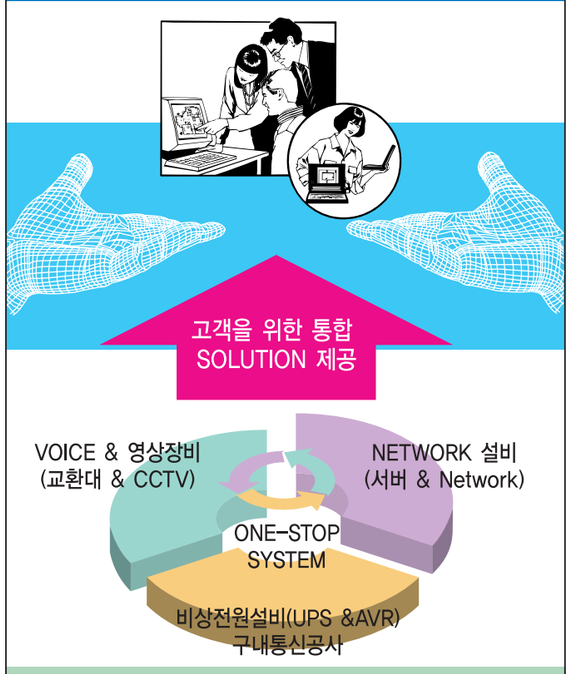
이번 저희 어머니 **고부이씨 기화(학선군부인·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8일

아 들 오용범 오희법 며느리 고중화 박덕심
오형범 김신열 신애순 김은실홍
딸 오영민 오영순 오영숙 오영심 사 위 김진홍 김정봉 이정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 · 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